

야기하였다. 하나님은 태초의 조화와 질서를 따라 새롭게 살아야 할 책임을 인간에게 요구하셨고,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본래의 뜻과 의도를 그대로 지키시려 하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통치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죄를 억제하고 창조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평하고 공정한 관리를 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실업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의 번영을 도모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개인의 경제적 행위는 다른 각 사람들과 공공사회와 번영을 위한 고려 속에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치자와 국민들은 그리스도의 법칙을 반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만 한다. 그러나 칼빈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책임을 무시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이웃을 착취하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탐욕을 따라 행함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인간 스스로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새롭게 자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안에서의 신앙적 회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식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책임의식을 새롭게 가지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위치에서 참된 봉사와 조화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죄인 된 인간의 삶에 있어 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실 모든 형태(종교적, 정치적 등)의 “완전주의”는 인간의 힘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전제한 망상일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적 우파는 정치적 좌파와 유사한 전제를 가진 동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새로운 순종의 회복은 끝임 없는 자기부정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의한 옛 본성과의 지속적인 투쟁의 삶을 의미한다. 따라서 칼빈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남을 위해 사는 삶은 이러한 자기부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하였다⁴³⁾.

칼빈과 교회연합운동 Calvin and Ecumenism

이상규*

목 차

1. 시작하면서
2. 칼빈과 교회연합
3. 교회연합을 위한 칼빈의 노력
4. 교회연합에 대한 칼빈의 견해
5. 맺는 말

1. 시작하면서

현대교회, 특히 20세기 세계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관심사는 천주교와 개신교, 그리고 개신교의 여러 교파들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대화를 강조하는 일련의 초교파적 연합 운동이었다. 이같은 운동은 1910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렸던 세계선교협의회(IMC)가 그 시발점 역할을 했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선교에 대한 에큐메니칼적인 접근이 강조되었고, 그후 계속된 협의회와 다른 모임들, 예컨대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운동 등에 의해서 개최된 일련의 회합들이 마침내 1948년에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에큐메니칼운동의 열매로 나타났다. 그 이후로 동 협의회를 통하여 여러 교회들간의 일치를 위한 대화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시작되었고 한국교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왔다. 카나다의 경우는 이미 1925년에 장로교와 감리교 그리고 회중교회가 저들의 고유한 교파명을 버리고 ‘카나다 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anada)’로 통합하였고, 호주의 경우는 1977년에 역시 장로교와 감리교 그리고 회중교회가 연합하여 ‘호주연합교회(Uniting Church of Australia)’을 구성하였다. 카나다의 경우 ‘연합된 교회’(United Church)라는 표현을 썼지만 호주에서는

* 교수(신학과), 역사신학전공

43) Inst., 3.7.5.

‘연합하는 교회’(Uniting Church)라는 표현을 씀으로서 장차 침례교나 성공회 등과도 연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에서도 교회연합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1950년대 이후 분열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처럼 외국교회의 연합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오늘의 현실에서 교회연합에 대한 신학적 검토는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16세기 대표적인 에큐메니스트라고 일컬어지는 칼빈의 견해와 그 시대를 중심으로 교회연합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오늘의 한국교회에서의 연합운동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연합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일치라는 단어를 상호교차적으로 사용하였다.

2. 칼빈과 교회연합

칼빈은 개신교내의 일치운동의 지도적 인물이었으므로 Willem Nijenhuis는 칼빈을 가르쳐 Calvinus Oecumenicus, 곧 연합운동가 칼빈이라고 호칭하였다. 기독교강요 4권 제1장에서는 교회의 하나님에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칼빈은 “참된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기독교강요 4권 제1장의 29개 항목 중에서 19개 항에 걸쳐서 신자들이 교회와 더불어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연합에 대한 칼빈의 관심을 헤아릴 수 있다. 칼빈이 교회의 하나님을 강조한 것은 참된 교회는 오직 하나이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교회연합, 곧 교회의 하나님에 참된 근거는 그리스도의 몸의 동일한 권속이라는 사실에 기초한다. 칼빈은 이점에 대하여 분명하였다. “교회의 연합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이 연합된 교회에 확실히 접붙임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선택받은 무리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서 모든 다른 지체들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장차 기업을 받으리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¹⁾ 칼빈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는 그들의 머리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단코 형제애적 사랑으로 연합될 수 없고 각자의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없다.”

칼빈의 후계자들도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였다. 예컨데 존 오웬(John Owen)에 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이 연합의 시초이자 원천이다. 모든 개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다. 이와같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관계는 교회연합의 기초이자 원천임을 사도들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엡4:15,16, 골2:19)”⁽²⁾

찰스 하지(Charles Hodge)도 이와 유사한 말로 교회연합의 근거를 말했다. “모든 개신교회는 천상천하의 모든 교회는 오직 하나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오직 하나님의 권속, 한 왕국, 한 가족 그리고 한 몸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이 연합의 중심임을 인정한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³⁾

(1) 칼빈, 「기독교강요」, 4권1장 2절

(2) J. Owen, *Works*, Vol. XVI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5), p. 189.

(3) C. Hodge, *The Church and Its Polity* (London, 1879) p. 89.

연합에 대한 이와같은 견해는 사실 신약성경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되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며(고전12:13),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며(요15:1), 하나님의 집의 동일한 권속들이다.(엡2:1)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엡2:19), 그리스도께 주어져 있고(요17:24),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요3:3)

칼빈은 교회연합의 근거를 특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찾았다. 즉 칼빈의 교회론은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음,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 cum Christo) 혹은 그리스도에 접붙임(insistio in Christum)에서 찾았다. 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그와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였다. 이 연합을 통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요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칼빈은 “하늘나라가 나뉘어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분열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다.”⁽⁴⁾라고 하였다.

칼빈은 루터와는 달리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communio sanctorum)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 혹은 기관(institution)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교회를 이 연합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았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하나님의 교회를 공교회(ecclesia catholica)라고 하였다.

3. 교회연합을 위한 칼빈의 노력

16세기 종교개혁은 보다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pura et sancta ecclesia)를 위한 노력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분열을 가져옴으로써 종교개혁 이후 교파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회개혁운동과 개신교내의 구조를 보면 사실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교회개혁 운동은 루터파와 개혁파, 장로파와 성공회 그리고 다양한 재세례파 운동 등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교회연합의 문제는 주요한 과제로 인식되었고, 칼빈은 교회의 개혁과 함께 교회연합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들간의 분열은 1529년의 마부르크회담이 결렬됨으로서 보다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때의 성만찬에 대한 견해 차이로 독일의 개혁운동과 스위스의 개혁운동이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지 못하고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분열을 가져왔다. 이때의 분열이 점차 심화되면서 칼빈은 교회의 연합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사실 이 당시 개신교 진영의 가장 심각한 견해차는 성만찬관이었다. 이 이견 때문에 독일과 스위스의 개혁운동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간의 연합은 시급한 과제였다. 공동의 적인 천주교와의 싸움을 위해서도 공동전선을 형성해야만 했다.

(4) *Corpus Reformatorum*.(이하 CR로 약기함) 51. p. 191.

칼빈이 이러한 연합을 위한 동기에서 쓴 작품이 「성만찬에 관한 소론」(Short Treatise on the Holy Supper of the Lord)이었다. 1540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써여진 이 논문은 칼빈 자신의 성만찬관을 보여주는 작품이지만 이 글은 루터와 콤빙글리간의 견해를 중재함으로서 양자간의 연합을 위한 시도로 써여졌던 것이다. 루터가 이 글을 읽었을 때는 1545년이었으므로 비록 때늦은 시도이긴 했으나 그동안 연합을 위해 노력해 온 칼빈의 정신을 읽을 수 있다. 칼빈은 성만찬관에 있어서 루터와 콤빙글리간의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다. 루터는 “이것은 내 몸이다”(Hoc est corpus meum)는 성찬식사(聖餐式辭)의 ‘이다’(est)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떡과 포도즙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 성찬의 상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함께 계신다고 하는 소위 공체설(共體說, consubstantiation)을 주장했다. 그러나 콤빙글리는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할 때 ‘이다’를 상징으로 해석하여 성만찬은 단순한 표지(mere sign)이며 단순한 기념(mere memorial)이라고 주장하였다. 말하자면 루터는 알렉산드리아학파의 기독론에 근거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적 몸은 두 본성의 결합(communicatio idiomatum)이므로 하늘 보좌 우편에도, 그리고 성찬상에도 동시에 현존할 수 있다고 하는 임재설을 주장했지만 콤빙글리는 “이것은 내 몸이다”는 성찬식사를 단순한 상징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칼빈은 루터와 콤빙글리의 성찬관을 중도적 입장에서 종합하려고 하였다. 그는 양자의 견해를 비판, 종합하면서도 중화적 입장의 영적 임재설을 말했다.

칼빈은 양 진영을 연합하기 위해 멜란히톤 등 루터파와 교제하면서 동시에 콤빙글리의 후계자인 불링거(H. Bullinger)와도 계속적인 교제를 시도하였다.

칼빈이 3년간의 스트라스부르크 생활을 끝내고 다시 제네바로 돌아왔을 때도 그는 제네바에서의 교회건설만이 아니라 스위스 개혁교회들을 연합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쏟았다. 1544년 루터는 성만찬 논쟁이후 다시 스위스개혁 교회에 대하여 공격을 화살을 보냈다. 콤빙글리의 후계자였던 불링거는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루터의 이 공격은 독일과 스위스의 연합을 추구하던 멜란히톤이나 칼빈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칼빈은 1544년 11월 25일자로 불링거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모두를 공격한 루터를 용납해야 한다”고 불링거에게 호소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자기 자신도 루터의 분노의 대상임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루터가 적 그리스도 왕국과 즐기차게 싸워 왔던 점을 상기시키고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독일과 스위스의 프로테스탄트 교회간의 연합에 지장을 가져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두달 후에는 멜란히톤에게 편지하면서 개신교회간의 대립은 교황주의자들에게 웃음거리를 제공하는 파괴적 짜움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칼빈은 이 편지와 함께 멜란히톤을 통해 루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루터를 “존경하는 사부(師父)”라고 호칭하고 “당신에게 속히 가서 단 몇시간만이라도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였다. 루터가 분노할 것을 두려워 한 멜란히톤이 칼빈의 편지를 전달하지 않음으로서 비록 칼빈과 루터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이 점 또한 교회연합에 대한 칼빈의 관심을 보여주는 일 예가 아닐수 없다.

칼빈은 스위스의 개혁과 교회들간의 연합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스위스의 제네바, 베른 그리고 취리히 교회간에는 약간의 상이점들이 있었고 칼빈, 부처 그리고 불링거 간에도 성만찬관 등 신학적 이견들이 노출되고 있었다. 우선 칼빈은 취리히와의 일치와 연합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였다. 스위스 개혁교회들 간의 연합은 개신교전체의 연합을 위해 보다 시급한 과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은 부처와 불링거를 화해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부처는 1549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추방

당함으로 영국에서 여생을 마쳤다. 칼빈은 성찬관에 있어서 불링거와 견해를 달리했는데 칼빈은 수년간의 대화와 서신 교환을 통해 신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칼빈은 1548년 성만찬 문제와 관련된 24개항의 문서를 불링거에게 보내 의견접근을 시도하였고, 베른의 개혁자들과도 동일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듬해인 1549년 칼빈과 파렐은 스위스의 불어사용지역 신학자 대표로 취리히로 갔고, 스위스의 독일어 사용지역 대표인 불링거와 만나 약 두시간 회합하였다. 이와같은 노력의 결과로 1549년에는 ‘취리히 협약’이라고 불리우는 ‘티구리누스 협약’(Consensus Tigurinus)을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1549년에 체결된 이 협약은 스위스 개혁교회, 특히 제네바와 취리히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역사적 문서였다. 26개항으로 된 이 협약문은 양측의 이해와 양보가운데 이루어진 소위 ‘예양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교회의 연합을 위한 칼빈의 구체적인 노력의 결과로 칼빈은 “세개가 될 변한 개신교를 두 교회(곧 루터교와 개혁교회)로 만들었던 것이다”⁽⁵⁾

교회연합을 위한 칼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루터파와의 연합은 이루지 못했다. 이것은 연합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독일의 루터파 신학자들은 지금까지 칼빈이 자기들과 가까운, 자기 편의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티구리누스 협약’을 통해 칼빈은 콤빙글리나 취리히 신학자들과 생각이 같은 ‘성례론자’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당시 독일에서는 순수 루터주의자들(genesio Lutherans)이 특세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소위 ‘제2의 성만찬 논쟁’을 개시한 것이다. 함부르크의 엄격한 루터주의자 요아킴 베스트팔(Joachim Westphal, ? - 1574)이 포문을 열었다. 베스트팔은 그의 책 「파라고」(Farrago)를 통해 칼빈과 티구리누스 협약을 공격하였다.

이런 와중에서도 칼빈은 런던에 있는 영국 피난민 교회를 염려하였다. 런던의 이 피난민 교회는 메리 치하에서 영국을 떠난 이들로 구성된 교회였으나 이들을 콤빙글리와 같은 성례론자라고 보아 루터교회가 자기들의 영토안에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다. 베셀(Wesel)에 와 있는 영국 피난민들에게는 루터교의 예배에 참여하라고 권고하였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영국 피난민들중 영국교회의 예배모범인 공동기도서(The Book of Common Prayer)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을 존중하라고 충고하기도 했다.⁽⁶⁾ 칼빈은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과제를 위해 많이 망설었으나 웨스트팔의 거듭된 공격에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본인의 말을 정직한 고백으로 받아준다면, 본인은 15년간 불화를 피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왔다.”고 술회하고 교회의 연합을 저해하는 논쟁에 처하게 된 점을 가슴아파했다.⁽⁷⁾ 결국 루터교와의 연합이 이루어 지지 못함으로서 개신교가 루터교와 개혁교회로 분열되어 갔으나 칼빈은 두 교회간의 연합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칼빈은 두 교회간의 연합에 대해 기대하면서 그 과제를 자신의 후계자인 베자(Theodore Beza)에게 숙제로 넘겨주었다. 그러나 베자도 그 숙제를 풀어가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다.

칼빈의 교회 연합을 위한 노력은 영국에까지 펼쳐졌다. 칼빈은 어린 요시아로 불리던 에드워드 6세를 비롯한 지도자들과 교회연합을 위해 논의하였다. 특히 웨스터민스터의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에게 보낸 칼빈의 글은 교회연합 의지를 선명하게

(5) 이형기, 「세계교회의 분열과 일치추구의 역사」, 장신대 출판부, 1994. p. 142.

(6) 이형기, 앞의 책, p. 143.

(7) 오토 웨버(김영제역), 「칼빈의 교회관」(동만출판사, 1985), p. 124.

보여주는 글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교회가 찢겨 있다면 그 품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저에게 큰 관심거리이므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필요한 일로 여겨진다면 저는 이 일로 인해 10개의 바다라도 건너기에 인색치 않을 것입니다.”⁽⁸⁾

칼빈은 영국교회(성공회)의 감독제에 대해서도 관용적이었으며 감독들이 복음적인 한 감독제가 개신교의 연합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점들만 보더라도 칼빈이 교회연합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1546년 루터가 사망한 후 칼빈은 개신교전체의 지도자로서 개신교회의 교회연합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칼홀(Karl Holl)의 말⁽⁹⁾은 진실이다.

4. 교회연합에 대한 칼빈의 견해

칼빈은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신학자였음을 이미 밝힌바다. 그의 교회연합에 대한 관심은 「기독교강요」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우리가 참된 교회와는 하나됨을 유지해야 한다. 그것은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고 했다.(4권 1장 제목)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초대하시는 의적 수단이며 도구라고 본 것이다.

이제 교회연합에 대한 칼빈의 입장을 정리해 두고자 한다.

첫째로 칼빈이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였지만 진리를 훼손하면서까지 연합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는 진리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참된 교회들간의 연합이었고 그 연합은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연합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칼빈의 개혁활동과 교회연합을 위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볼 때 진리의 보존과 연합의 추구, 양자간에는 긴장이 있다. 연합이 중요하지만 결코 진리가 훼손되어서는 않된다고 보았다. 칼빈은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생활에 대항하는 싸움은 교회의 하나님에서 분리하는 행위가 아니라 교회의 하나님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보았다.

어떤 점에서 칼빈은 로마카톨릭과 결별을 결정한 최초의 개혁자였다. 그가 로마교와 결별한 때는 트렌트회의(1545~1563)가 교리적인 문제를 천명한 1547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트렌트회의는 개신교의 교회개혁 운동에 대항한 반(反)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교의 교리적 입장은 재천명한 회의였다. 이 회의에 대해 칼빈이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교회와의 화해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타진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는 성경(聖經)과 전통(傳統, tradition)과 칭의(稱義)의 문제 등에 대해 이전의 입장을 더욱 확고히 했기 때문에 이들과의 화해나 연합의 가능성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칼빈은 1547년 「트렌트회의의 결정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해설」(*Acta Synodi Tridentinae cum Antidoto*)을 썼는데 이것은 로마교와의 화해의 마지막 가능성마저 사라졌음을 확인한 저작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그는 반(反)

반종교개혁자(反宗教改革者)가 된 샘이다. 칼빈은 개신교회는 결코 로마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교회가 아니라 카톨릭교회의 새로운 형태라고 이해하였다. 칼빈의 관심은 진리였다. 로마교회는 더 이상 진리를 간직한 교회라고 볼 수 없었고 따라서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의 로마(천주)교와의 분리는 사실상 분리가 아니라, 진리의 재정립을 위한 회복이었다. 칼빈은 진리의 재정립 없이는 교회의 하나님을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¹⁰⁾ 다른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칼빈은 ‘로마에의 순종’(Romann obedientia)보다 말씀에의 순종을 절대시 했고, 잘못된 교리와 생활에 대항하는 싸움은 교회의 하나님에서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존하는 유일하고 바른 길이라고 보았다. 이같은 점은 초기경 사돌렛(Jakobs Sdolet)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개신교운동은 교회분리 운동이라는 비난에 대해 “그것을 어떻게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모든 병사들이 자기 위치를 이탈했을 경우에 어느 누가 군기를 높이 들고 각자는 자기 위치로 돌아오라고 소리친다면 그것을 분리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¹¹⁾라고 했다. 개신교운동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것이라는 사돌렛의 비난에 대한 칼빈의 대답은 그의 진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당신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 개혁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할자들이라고 여기는 것이 오히려 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드리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흡翕이 보존하려는 거룩한 열망에 의해 고무되고, 비열한 유혹자들에 의해 오염되는 교회를 보면서 교회로 하여금 혼인의 정절을 상기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교회의 순결을 더럽히는 모든 행악자들에 대항하여 주저함 없이 싸움을 벌이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 나는 개혁자들에 대하여 퍼붓는 당신의 비난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¹²⁾

말하자면 칼빈은 무조건적인 연합을 추구한 인물이 아니다. 그는 연합을 우선시 한것이 아니라 진리의 보존에 관심이 커다. 칼빈은 교회의 하나님을 추구하였으나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참된 교회들간의 연합을 추구했을 뿐이다. 그것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는 참된 교회들(vera ecclesia)간의 연합을 추구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교회의 연합을 추구하되 어디까지나 ‘참된 교회’들 간의 연합을 추구하였다. 그는 오늘의 세계 교회협의회(WCC)와 같은 외형적 일치를 추구한 에큐메니스트가 아니었다. 그러면 무엇이 참된 교회인가? 어떤 교회라는 집단을 ‘참되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칼빈의 교회연합에 있어서 현존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에 대한 관심은 그의 연합에 대한 관심보다 우선하였다.⁽¹³⁾ 칼빈은 참된 교회의 표지(natae ecclesiae)로 두 가지, 곧 말씀의 신실한 선포와 성례의 옳바른 시행을 들었다.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성례를 순수하게 집행한다면 이런 표지가 있는 단체를 교회로 인정해도 된다는 충분한 보장이 된다. 이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이 표지를 보존하고 있는 한 다른

(8) *Calvini Opera*, XIV, col. p. 314.

(9) K. Holl, *Gesammelte Aufsatze zur Kirchengeschichte*, Bd. 3. 1929, s. 273.

(10) 오토 베버, 앞의 책, p. 105.

(11) CR 5, p. 409ff.

(12) 「사도렛의 답신」, 박건택편역(바실례, 1989), p. 81.

결점이 많더라도 우리는 그 공동체를 배척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 두가지 표지가 없는 교회는 참다운 교회로 볼 수 없고 멀망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¹⁴⁾ 이것이 참된 교회의 기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은 “만일 이 기초(말씀을 의미함-필자삽입)를 누가 제거한다면 어떻게 건물이 설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다.⁽¹⁵⁾

칼빈은 교회는 하나이고 카톨릭적(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그 카톨릭 교회를 개신교 안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개신교회내의 보다 나은 일치를 위해 진력하는 것을 의무로 여기게 된 것이다. 교회의 일치 혹은 연합은 칼빈에게 있어서 일종의 신앙의 문제였다. 그러나 일치를 유지해야 할 교회는 참된 교회여야 했다.

칼빈은 천주교회에는 ‘신자들의 모임’만 있을 뿐 하나인 교회는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점이 명백해 진 이후에 이들과의 연합은 사실상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로마 카톨릭이나 소위 ‘완전한 교회’를 주장하는 극단적인 분리주의 재침례파와의 연합을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참된 교회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하나됨은 참된 교회의 하나됨을 의미했다.

세째로 칼빈은 참된 교회의 연합에 있어서 개신교회들간의 차이점은 인정했다는 점이다. 칼빈은 보편적인 교회와 지역교회를 구분하는데 보편교회는 지역교회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교회는 이름 그대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지역교회들간에는 근본적 교리의 차이는 있을 수 없으나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예컨데 칼빈은 성경에 대하여 제네바 교회와는 달리 해석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차이가 정죄될 수 없다고 보았다. 칼빈은 지역교회들은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지 않는 한 보편적인 신앙고백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다른 가르침을 따를 수 있고 서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다.⁽¹⁶⁾ 당시 칼빈은 루터나 멜랑히톤이 여러가지 면에서 자신과 다른 교리를 주장했지만 이들과 연합하려고 시도했던 점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네째로 칼빈은 교회연합에서 기본적인 신앙교리에 대한 동의를 중시하였다는 점이다. 개별적인 교리가 다 동일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고 “모든 점에서 확실하고 의심할 필

(13) 종교개혁 당시 현존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이러한 관심때문에 참된 교회의 표식에 대한 교리가 나오게 되었다. 아우구스부르크 고백서(*Confessio Augustana*)에서는 교회론을 취급하는 제7장과 8장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였고, 루터는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모인 신학자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와 1539년에 출판한 「공의회와 교회들」(*Von den Konzilis und Kirchen*)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였다.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이 당시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증거와 성례전의 합당한 시행을 참된 교회의 표지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Confessio Scotia*, 1560) 제18조와 벨기에 신앙고백서(*Confessio Belgica*) 제29조에서는 참된 교회의 표지로 말씀과 성례에 권리장을 첨가하여 3가지 표지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발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칼빈은 권리장을 참된 교회의 독자적인 정표로 보지 않고 말씀과 성례속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참되게 드려지는 공예배’(public worship, performed, more or less, purely)를 참된 교회의 표지로 첨가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구는 D. Macleod, *The Basis of Christian Unity, Evangel* (Autumn.1985), pp. 2ff.를 참고할 것.

(14) 「기독교강요」, IV. 2. 1.

(15) 앞의 책

(16) 오토 베버, p. 115.

요없이 잘 알아야 할 교리들에 대한 공통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¹⁷⁾ 다시 말하면 칼빈은 기독교의 기본교리(fundamenta christianismi) 사상에 근거하여 교회일치를 위해 노력하였다. 칼빈이 루터교와 일치를 시도했던 것은 기독교신앙의 중요한 원리에 대하여 기본적 일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반 삼위일체론자였던 마테오 그리발트(Matteo Gribaldi)에 반대했던 것은 그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원리를 파괴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¹⁸⁾ 그러면 기독교의 기본교리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 칼빈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¹⁹⁾ 그러나 그 대강의 개요는 감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 오토 베버는 그중의 한가지 예를 칼빈이 베스트팔에 대항하여 쓴 글의 서문에서 찾고 있다.⁽²⁰⁾ 즉 이 글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부패한 인간, 은혜로 주시는 구원, 의롭다함을 얻음, 그리스도의 직분과 사역, 개인의 회개와 실천, 복음에 약속된 구원의 확실성 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목록들은 기독교신앙의 근본 교리에 대한 완전한 목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성령에 관한 교리, 성례, 종말에 관한 조항들이 없기 때문이다. 칼빈의 「기독교강요」 등 다른 글들을 종합해 볼 때 아마도 사도신경에 언급된 기본적인 교리에 기초한 종교개혁 운동의 중요한 공통된 교리들을 칭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칼빈은 근본적으로 사도신경에 근거한 교회일치를 모색하였음을 분명하다. 그는 그의 요리문답(Catechism)에서 사도신경은 모든 기독교 교리의 요약이며, 모든 신자들의 공동의 고백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그의 기독교강요의 구조를 사도신경에 따라 배열하였다. 이와같은 점에서는 루터나 쪼빙글리도 칼빈과 동일했다. 칼빈은 사도신경에 나타난 ‘카톨릭(보편적)교회’와 ‘성도들의 교제’가 동일한 내용을 가르키는 것으로 보았다. “교회는 카톨릭 혹은 보편적이라고 불리운다. 우리는 교회를 둘 혹은 셋 교회들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눠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라는 말이 첨가되었다. 그것은 교회의 본성을 보다 완전하게 나타낸다. 이들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와 은사들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²¹⁾

근본적인 신앙조항에 대해 칼빈이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는 것은 교회일치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회피했을지도 모른다는 오토 베버의 견해는 약간의 타당성이 있다. 베버는 신앙조항들에 대해 일일이 규정하고 열거함으로서 신자들로 하여금 중심교리를 받아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으로 착각케 할 수 도 있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²²⁾ 그러나 이 당시의 신학적, 교리적 차이로 인한 대립과 토론, 칼빈 자신의 명료한 신학적 견해들을 고려해 볼 때 칼빈이 교회의 하나됨의 기초로서의 기본적 신앙조항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어떻든 칼빈은 교회연합에 있어서 신앙적 기초를 강조하였다는 점은 신앙고백적 일치보다는 외형적 연합을 우선시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교훈적 경고를 주고 있다.

(17) 「기독교강요」, IV. 1. 12.

(18) CR, 16. p. 456.

(19) 오토 베버, 앞의 책, p. 210.

(20) 오토 베버, PP. 119, 210.

(21) 「기독교강요」, IV. 1. 2”3.

(22) 오토 베버, P. 122.

5. 맷는 말

16세기 종교개혁은 보다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pura et sancta ecclesia)를 위한 노력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분열을 가져옴으로써 종교개혁 이후 교파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신교내의 구조를 보면 사실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교회개혁운동은 루터파와 개혁파, 장로파와 성공회 그리고 다양한 재세례파운동 등으로 발전하였고 또 18세기 이후에는 신앙고백과 사회적 요인으로 더욱 다양한 교파가 생성되었다. 특히 한국에서의 경우 장로교회만 하더라도 100여개를 상회하는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교회일치를 위한 노력은 현대교회의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칼빈은 마틴 부처(M. Bucer, 1491~1551)등과 같이 교회의 개혁과 함께 교회연합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불려낸을 받은 공동체로서 각 구성원들은 한 몸의 자체이므로 연합에 대한 관심은 교회론적 입장의 당연한 요구였다. 칼빈은 1539년 프랑크푸르트회의(이 회의에서 멜란히톤을 처음 만났음), 1540년 하게나우(Hagenau)회의, 1540~1541년의 보름스(Worms)회의, 라티스본(Ratisbon)회의, 1541년 레겐스버그(Regensburg)회의에 참석했던 것은 독일의 개신교운동과의 연합은 물론 로마 카톨릭과의 화해와 재 결합의 가능성을 탐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트렌트회의를 통해 이전의 입장, 곧 성경과 전통은 진리의 두 원천(two sources of authority)이라고 주장하고 전통이 단순히 성경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성경과 독립된 또 하나의 진리의 원천라는 주장 등 칭의, 성례전, 교회구조등에 있어서 이전의 입장을 더욱 확고하게 규정하였으므로 로마 교회의 화해의 가능성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칼빈은 기본적 신앙교리에 동의하는 참된 교회와의 연합을 추구했던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일치는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리안에서의 일치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됨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 일치는 참된 교회들간의 일치여야 했다.

이상과 같은 교회연합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진리의 보존과 함께 교회일치를 위한 노력, 양자간의 문제에 대한 동시적 성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기독교의 기본진리와 교회의 순결을 문제시 하지 않는 연합운동은 진정한 연합일 수 없으며, 진리문제와 관계없는 교회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심각한 범죄임을 동시에 가르쳐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칼빈의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견해는 오늘의 한국교회에 교훈과 함께 심각한 경고를 주고 있다.

高神大學校
論文集第22輯
1995 pp. 41~77

DER BEGRIFF DES HÖCHSTEN WESENS BEI R. DESCARTES UND I. KANT

— im Vergleich des Cartesischen Apriorismus mit dem
Kantischen Postulatismus im Gottesbegriff —

Prof. Dr. KOANG-SIK CHON*
(Kosin Universität)

Inhaltsverzeichnis

I. Prolog : Der Ausgang der Diskussion über das höchste Wesen

1. Descartes : Gott als Garant für die Sicherheit der Erkenntnis
2. Kant : Gott als Ideal der reinen Vernunft

II. Das höchste Wesen zwischen Begriff und Substanz (das Problem der Existenz Gottes)

1. Descartes : Gott als Wirklichkeit
2. Kant : Gott als Idee

III. Das höchste Wesen zwischen Dasein und Sosein (das Problem der Eigenschaften Gottes)

1. Descartes : Gott als veracitas
2. Kant : Gott als postulat

IV. Schluß : Zusammenfassung

* 조교수(신학과), 고대철학전공